

리딩 리서치의 1월 FOMC 미리 점검

< 물가-고용-소비 중심으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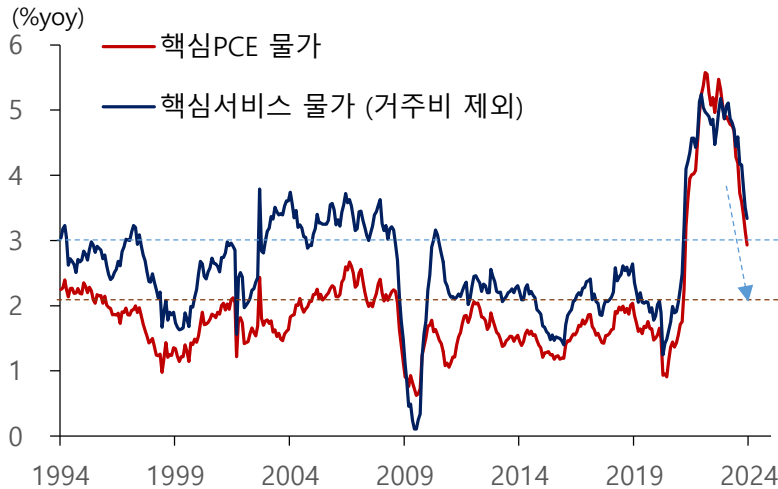
리딩투자증권 광병열

2024.01.30

1 1월 FOMC 이전 물가 변수 → 예상경로로 둔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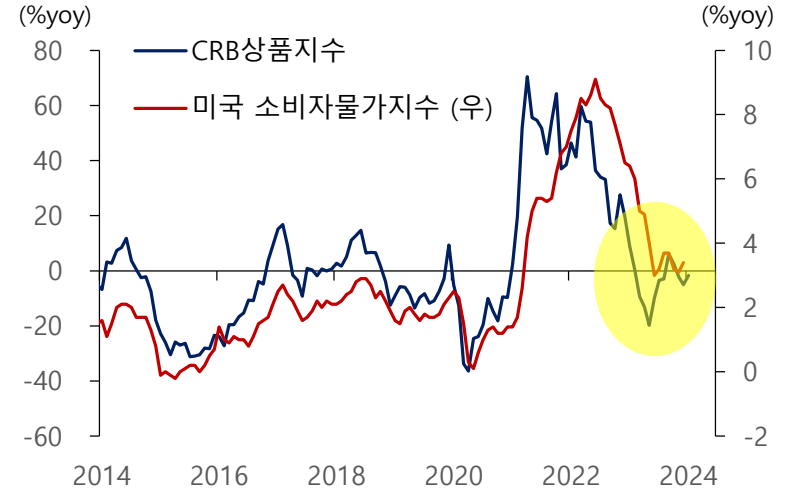
- 1월 FOMC(한국 기준 2/1일 4시) 이전 확인된 미국 물가 변수는 시장예상 경로로 둔화 중
→ 12월 핵심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2.9%로 전월(3.2%) 및 예상(3.0%)치 하회하면서 2021.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. 다만 물가지표 중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핵심서비스 물가(거주비 제외)의 전년비 둔화 폭은 핵심PCE보다 더딘 편임(전월비 기준으로는 이전 0.14%에서 약 0.30%으로 증가)
-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상품지수 전년동월비는 음(-)의 영역에 머물면서 후행하는 소비자물가는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미국 핵심PCE 물가: 2%대 진입에 성공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최근 상품가격 상승에도 아직 물가상승은 둔화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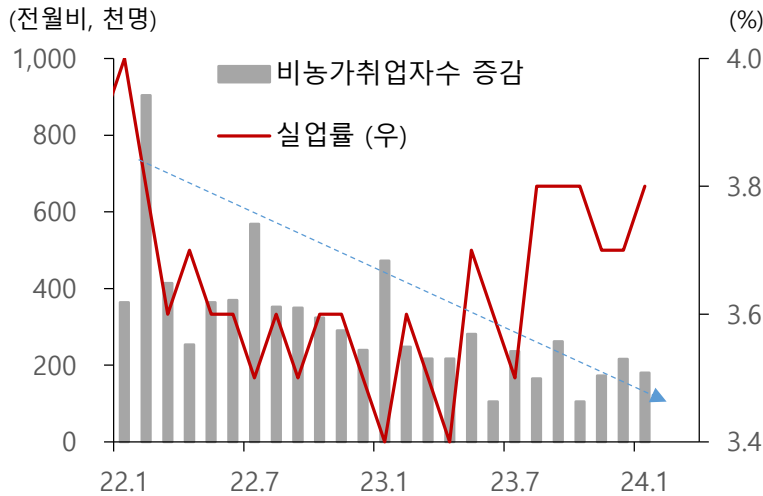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2 1월 FOMC 이전 고용 변수 → 예상보다 견조하나 중기적으로 완만한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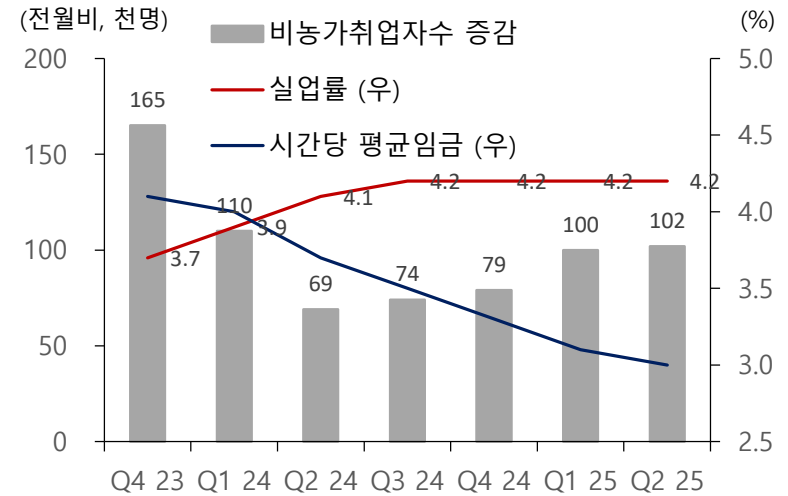
- 1월 고용지표는 1월 FOMC 이후인 2일(한국기준 22:30) 발표 예정
 - 1월 비농가취업자수 증가(신규고용)는 18만명 예상(전월 21.6만명), 실업률은 3.8% 예상(전월 3.7%)으로 미 고용지표는 완만한 둔화세 전망
 - 특히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에 의하면 2분기 중 비농가취업자수 증가는 10만명 이하, 실업률은 4% 이상, 시간당평균임금은 4% 이하로 의미 있는 고용시장 둔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
-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감원이 본격화되면서 여타 기업으로의 연쇄 반응에 주목

미국 고용: 일자리증감 및 실업률 모두 완만한 약화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미국 고용전망: 2분기 중 본격적인 둔화 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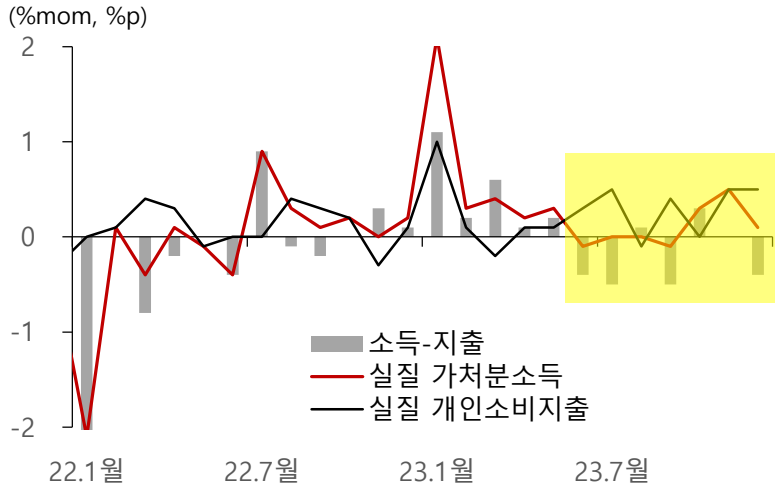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3 1월 FOMC 이전 소비 변수 → 소득 증가를 초과하는 소비는 결국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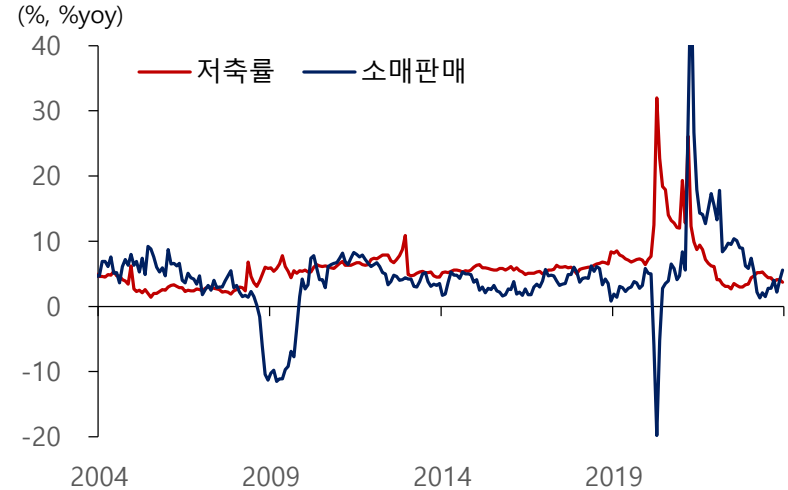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연말특수 효과는 예상보다 강하게 12월 소비지표에 반영되었으나,
→ 지난 12월 소비(실질 개인소비지출)은 가처분소득 증가 폭 이상의 과소비로 해석함
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처분소득 증가 이상의 과소비가 지속적으로 관찰
- 소비여력의 원천인 저축률 악화되고 있어서 결국 증장기 소비의 연속성은 훼손될 수 있음
→ 소비여력인 저축률 악화는 결국 증장기 소비에는 악영향
→ 미국 가계의 신용 연체율 및 저축률 둔화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

가처분소득 증가 이상의 과소비 관찰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소비여력인 저축률 악화는 결국 증장기 소비에는 악영향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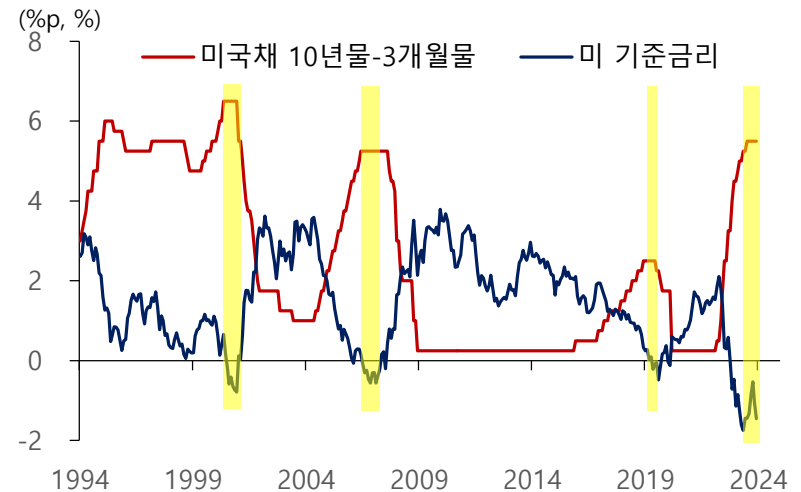
- 연준 통화정책 변경의 명분이 되는 '물가-고용-소비' 지표는 최근 '물가-고용' 중심으로 완만한 둔화
→ 물가 하향세를 명분으로 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한 간접적인 통화완화 의지를 시장은 읽고자 할 것임
→ Fed Watch에 따르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50.5%를 나타내며, 금리인하 기대감은 재고조
-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반-반이고,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편
→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하나, 1월 FOMC는 간접적으로 연내 통화완화의 실마리를 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함. 기존 물가안정 최우선 기조에서 경기 연착륙도 점차 고려할 가능성에 주목
→ 1월 FOMC는 디커플링 완화의 계기로서 박스권 하단에서 중단으로의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함

미국의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지속 중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 축소 시, 금리인하 가시성 ↑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